

정읍시, 내년 농림축산식품사업 키운다

숲 가꾸기·축산시설 현대화 등 44개 사업 1434억원 지원

정읍시가 2020년도 정부 예산 지원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44개 사업에 1434억원을 확정했다.

정읍시는 최근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농업분야 기관단체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심의회에서는 경종분과와 축산분과, 임업유통분과, 정책분과 등 총 4개 분과의 심의가 진행됐다.

분과별 확정사업과 금액은 경종분과는 영농 규모화와 수리시설개보수, 일반농산어촌개발 등 14개 사업 454억원, 축산분과는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축사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 477억원이다.

임업유통분과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지원과 조림, 정책 숲 가꾸기 사업 등 16개 사업 104억원, 정책분과는 쌀소득 보전 고령



정읍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농업분야 기관단체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제공)

직접 지불금과 농업경영컨설팅 등 9개 사업에 399억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전북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고, 이들 사업 전체가

모두 확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심의된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여 간 한국농어촌공사,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접수를 거쳐 선정됐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효성첨단소재, 468억원 투자 전주공장 생산라인 증설

전북도와 협약식

일자리 창출 기대

효성첨단소재가 468억원을 투자해 전주공장의 생산라인을 증설하기로 하고 최근 전북도청에서 투자 협약식을 했다. <사진> 효성첨단소재는 내년 2월까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단지 내의 현 탄소섬유 생산공장 인근 18만48㎡ 부지에 생산라인을 추가로 만든다.

이 회사는 2013년부터 전주에 공장을 건립해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다.

증설 투자가 완료되면 현재 연간 2000t 규모의 생산량이 배로 늘게 된다.

40여개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효성첨단소재측은 "수소차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수소연료탱크 수요 증가 등에 대비한 증설"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무게는 4배 더 나가



고 강도는 10배가 높은 첨단 신소재다. 우주항공용 소재와 자동차용 구조재, 스포츠 레저용 제품 등으로 쓰임새를 넓혀나가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협약식에서 "이른 시

일 안에 증설 투자가 마무리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첨단소재기술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립교향악단,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군산시립교향악단이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음악회를 14일 오후 군산시 예술의전당에서 개최한다.

백정현 상임지휘자 지휘로 '일제하 항거한 민초와 독립운동가 정신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사물놀이패 흠소리와 합동 공연을 펼친다.

군산시민의 헌정곡인 '만세운동 기념 합창 서곡'을 시작으로 작곡가 김에라의 민요 '아리랑'과 '애국가' 등을 들려준다.

이어 첼리스트 김준환의 '차이코프스키 로코코 주제 변주곡'을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러시아 국민의 저항의식이 담긴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5번 작품 64'이 장식한다.

군산시립예술단 관계자는 "100년 전 우리나라에 울려 퍼진 독립만세의 감동을 되살리고, 한강 이남에서 첫 만세운동을 펼친 3·5군산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한국 전통 미인 뽑자"

남원 '춘향선발대회'

25일까지 참가 신청

가장 한국적인 미인을 뽑는 춘향선발대회의 참가자 모집이 시작됐다.

남원시 춘향제전위원회(위원장 안숙선)는 '제89회 춘향제'의 백미인 '춘향선발대회'의 참가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응모자격은 1996년 1월 1일에서 2002년 12월 31일에 출생한 고등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다.

희망자는 춘향제 홈페이지에서 응모원서를 내려받아 25일까지 위원회 등에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결과는 27일 춘향제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이후 위원회는 1·2차 예선을 4월 6일과 4월 7일 양일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한다.

위원회는 1·2차 예선을 진행해 본선진출자 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본선 진출자는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합숙과정을 거쳐 5월 8일 광한루원 완월정 특설 무대에 오른다.

위원회는 본선진출자를 대상으로 진·선·미·정·숙·현과 해외동포상, 우정상 등을 선발한다. 이날 수상자들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알리는 남원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한편 제89회 춘향제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 박차

익산시,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가정책 접목 행정력 결집

익산시가 KTX익산역을 활용한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철도 국가정책을 시의 현안사업에 접목해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행정력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KTX익산역이 KTX-SRT고속철도와 일반철도가 동시에 정차하고 호남선·전라선·군산선·장항선 등이 분기하는 국내 유일의 역으로 호남권 환승거점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 복합환승센터체계 구축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익산역의 이점을 활용해 대규모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는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계획해 왔다.

시는 익산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면 시내·외 고속버스, 택시 등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 센터 구축을 추진해 왔다.

또 이 센터와 함께 익산권 서부권 일원에 환승과 함께 업무, 판매, 상업, 숙박, 주거시설 등을 마련해 정주여건을 개선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시의 계획은 정부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국가정책에 발맞춰 익산역을 대륙철도 시발역으로 선정시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또 새만금과 연계한 환황해권 경제구역의 철도중심역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환승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미 기존의 계획에 가미해 익산역의 대륙철도 시발역과 환황해권 경제구역 철도중심기지로의 활용을 위해 철도전문가 자문과 함께 광역환승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내륙철도물류기지과 복합지식산업센터, 스마트환승주차장 등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정책사업과 연계한 개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위' 역량 대폭 강화

고창군이 올해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열고 교계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금년도 운영계획 설명, 주민참여예산제 발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 농생명식품, 문화자치, 복지환경, 살기좋은도시 등 각 분야별 위원회를 열어 주민주도형 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의

견수령 방법에 대한 논의도 했다.

군은 이달 중 전 군민을 대상으로 3주 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군의 예산편성 과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 참여예산사업이 확정되는 9월에는 제안사업 발표회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투명성과 공정성,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60명으로 꾸려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했다. 그 결과 총 24건에 11억4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창=박정진 기자 phj@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하세요"

농관원 전북지원,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오는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꾀하고, 환경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

물 인증과 HACCP(해적·식품안전관리인증)으로 농장 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 소재지 관할 전북농관원 및 시·군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전북농관원은 신청 농가의 총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수에서 최고 요지 땅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평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3627-8282

